

2017 부산체육슬로건

부산체육인은 2030 등록엑스포 부산유치를 응원합니다

Vol. 7 $\frac{05}{06}$
2017

부산 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EXPO 2030

54만개 일자리 창출
월드엑스포 유치는
약 5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40,000

49

TRILLION KRW
IN 2030 GDP

5천만 관람객 유입,
전세계 및 국내 5천만
관람객이 우리나라
부산을 방문합니다.



49

TRILLION KRW
IN 2030 GDP

49조원 경제효과,
엑스포 유치는 약 49조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지상최대규모의 축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손꼽을 최대규모의
축제입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2030 부산월드엑스포, 조금만 다가서면 보입니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30,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와 먼 이야기 만은 아닙니다.
대규모 경제 상승효과와 대폭 늘어나는 일자리, 5천만 관람객이 참여하는 세계인의 축제 엑스포를
여기 부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BUSAN
WORLD
EXPO
2030



54만개 일자리 창출

엑스포 유치는 약 5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천만 관람객 유입

전세계 및 국내 5천만 관람객이
우리나라 부산을 방문합니다.



지상최대규모 축제

국내·외를 불문, 해외에서도 손꼽을
최대규모의 축제입니다.



49조원 경제효과

엑스포 유치는 약 49조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6개월 행사기간

6개월의 장기 행사를 통한
홍보효과로 부산은 세계속의
유명 관광도시가 될것입니다.

Contents



부산체육 PEOPLE & PEOPLE

- 04 이달의 칼럼 _ 배지열 국제신문 편집국 스포츠레저부 기자
- 06 파워 인터뷰 _ 안종일 부산광역시 건강체육국장
- 09 이달의 인터뷰 _ 최인영 신곡초등학교 에어로빅체조 지도자

부산체육 PANDORA

- 12 생생 리포트 _ 미리 본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18 Education _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강사교육
- 20 Duty training _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직무연수
- 22 Bicycle _ 부산시민자전거대회
- 24 Class _ 자전거무로교실
- 26 Ceremony 01 _ 반여고등학교 씨름부 창단식
- 27 Ceremony 02 _ 해강고등학교 세일링부 창단식
- 28 Ceremony 03 _ 중현초등학교 육상부 창단식
- 29 Ceremony 04 _ 용문중학교 정구부 창단식
- 30 Athletic meet _ 제55회 체육주간기념
생활체육교실 회원체육대회
- 31 Sailing _ 아시아 세일링워크 개막
- 32 Festival _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미리보기

센터엔터 PANDORA

- 34 부산국민체육센터소식
- 36 북구국민체육센터소식

구·군체육 PANDORA

- 38 구·군체육회 소식

회원종목 PANDORA

- 42 회원종목단체 소식

부산체육 NEWS BRIEFING

- 50 체육정책 _ 부산광역시·문화체육관광부

부산체육 SPORTS PLAYER

- 54 최고가 되기 위해 꿈을 꾸다 _ 스포츠 선수

부산체육 TRAVEL & SPORTS

- 58 시원한 여름여행 _ 부산 여름 레포츠

부산체육 FOOD

- 62 몸 건강 챙기는 보양식 _ 장어

부산체육 EXHIBITION

- 64 사색을 즐기다 _ 전시회

부산체육 2017 05+06 통권 7호 부산체육인은 2030 등록엑스포 부산유치를 염원합니다.

발행일 | 2017년 5월 10일 (격월간, 비매품, 통권 제7호) 발행인 서병수 편집인 송미현 편집·취재 이성재, 서원택, 이민경, 하나근, 김민지

발행처 | 부산광역시체육회_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부산광역시체육회관 Tel 051.500.1300 / 500.7900 Fax 051.500.1309 / 500.6306

디자인·인쇄 | 한글그래픽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65번길 41(범천동) Tel 051.632.7842 www.hanguel.co.kr



이달의 칼럼

4

부산 프로스포츠여, 부활하라



배 지 열

국제신문 편집국 스포츠레저부 기자

야구의 도시, 부산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3대 프로스포츠 구단이 연고를 두고 있는 도시다. 각 구단은 모두 인상 깊은 성적으로 팬들의 뇌리에 박힌 전성기를 지냈다는 공통점도 있다. 프로야구 출범 원년인 1982년부터 지금까지 '구도' 부산을 상징하는 구단으로 자리 잡았고, 두 차례 우승을 차지한 롯데 자이언츠, 프로축구 대우 로얄즈 시절부터 국가대표 스타플레이어들이 즐비해 구름관중을 몰고 다닌 부산 아이파크, 프로농구 한 시즌 팀 최다승(2010~2011시즌 41승 13패) 기록을 새로 쓰며 정규리그 우승컵을 안았으며, '봄농구'의 단골손님으로 여겨졌던 부산 KT까지, 모두 한때 화려한 영광을 안았지만 지금은 오래 전 이야기로 남은 에피소드들이다.

최근 몇 년 간 부산을 연고지로 둔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암흑기를 걷고 있다. 롯데는 최근 5년간 '가을야구' 무대를 밟는데 실패했다. 잦은 감독교체와 선수단 내부 문제까지 터지면서 팬들의 외면을 받고 관중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아이파크는 2부 리그인 K리그 챌린지에서 2년째 고군분투 중이다. 확실한 해결사 부재로 반등의 기회를 좀처럼 잡지 못했다. KT는 창단 최다 11연패에 빠지며 최하위를 맴돌다 10개 구단 중 9위로 시즌을 마쳤다. 가장 최근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기역도 3시즌 째 멀어져 간다.

부산을 연고로 하는 구단들의 부진은 단순히 프로 구단 자체의 인기가 하락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당장 해당 팀들의 홈구장이 위치한 사직동과 대신동 지역 상권이 휘청거렸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으레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북적이던 모습이 사라지면서 상인들의 호재가 사라졌다. 특히 포스트시즌에 연속 진출한 2008년부터 4년간 평균 관중 2만 명 이상을 유지한 롯데의 부진이 끼친 영향이 컸다. 「한국 프로야구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보고서에서 2010년 기준 롯데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2,313억 원으로 계산돼 당시 8개 구단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 고용 효과도 21만여 명에 달해 직접적인 지역 경제 성장 기여가 높았다. 이후 하락세를 겪은 팀을 따라 경기장 주변과 부산 지역 경제의 침체에도 분명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어려운 여건에도 새로운 힘을 내는 부산 야구

지역 스포츠 성장에도 좋을 것이 없다. 특정 종목의 성과와 성적에 따라 노출 빈도가 달라지는 만큼, 같은 종목을 즐기는 동호인이나 미래의 선수가 될 유소년 선수들의 관심 밖으로 멀어질 가능성도 크다. '00키즈'로 불리는 각 종목 꿈나무들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준 종목에 입문해 프로 선수로 성장한다. 지역 연고 구단과 스포츠가 부침을 겪는 현실 속에 오히려 규모와 지원은 줄어든다는 현실이다.

아마야구의 산실로 여겨졌던 구덕야구장 철거가 결정되며 대체구장 부지가 결정되기 전까지 한동안 야구 유소년 선수들은 연습과 경기를 치를 곳이 사라질까 불안에 떨어야 했다. 프로 농구의 산실이 돼야 할 지역 유소년 농구팀들도 과거에 비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다.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한 동주 여고와 라이벌 구도를 이루던 혜화여고 농구부가 없어지면서 부산에서는 여고부 팀이 연습경기를 치를 상대도 사라졌다. 농구 명문으로 일컬어진 부산 동아고와 중앙고도 선수 수급에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로스포츠가 부흥하고 자리 잡아 열기를 띄우면 지역 체육 발전으로도 이어나갈 수 있다. 다행히 부산 연고 구단들은 새로운 시즌을 맞아 힘을 내고 있다. 롯데는 '돌아온 4번타자' 이대호를 앞세워 막강한 공격력을 되찾았다. 시즌 초반이지만 상위권에 위치하며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어 전망도 긍정적이다. 아이파크도 국가대표 공격수 이정협이 개막전 이후 연속경기 골을 집어넣으며 팀을 이끌고 있다. 기업구단 최초의 강등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다시 1부 리그인 클래식에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KT는 지난 시즌 막판 팀의 구심점을 찾으며 최하위를 벗어나 좋은 분위기로 시즌을 마쳤다.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벌써 다음 시즌을 대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과거의 영광 재현을 위한 에너지는 '관심과 응원'

성과와 분위기가 나아지는 만큼 각 구단들은 지역민, 지역 스포츠와도 밀접한 교류를 이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유소년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지역 중·고교 아마야구팀에 용품을 지원하는 롯데와 구단 직영 축구교실 브랜드를 운영 중인 아이파크, 구단 이름을 걸고 3대3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하고 지역 팬미팅 행사를 이어가는 KT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고 있다. 아직 걸음을 떼는 단계지만 연고 구단에 대한 관심과 응원, 성적 향상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면 더 크고 많은 혜택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프로스포츠와 지역 연고 구단에 대한 관심을 선순환의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다. 지역의 스포츠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과 기회가 돌아갈 것이다. 우리들도 이 기회에 관심을 한 번 가져보자. 평일 저녁이나 주말 오후를 이용해 경기장을 찾으면 나름의 재미와 흥미가 가득하다. 경기를 지켜보며 스포츠와 팀, 선수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면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구단들도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팬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지역의 팬들과 더 많은 사람들을 경기장과 운동장으로 불러 모을 수 있는 계기는 소통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에 따른 좋은 성적이다. 앞으로도 부산 지역 연고 구단들이 더 많은 팬들을 다양한 곳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부디 부활하라!

부산 체육 중흥, 함께 이룹시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통합의 시너지를 이루다

파워인터뷰

안 종 일 부산광역시 건강체육국장

지난해 체육회가 통합을 이룬 이후, 부산체육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분야가 합심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 중심에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안종일 건강체육국장을 만나 '건강하고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견해를 들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산위해 '건강지표 향상에 중점'

부산광역시시는 최근 시민들의 건강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올해 '걷기운동 실천 및 확산을 위한 봄 조성'과 '금연·절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시민 운동 전개'를 역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부산광역시 건강체육국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부산', '민·관 협력 의료확대 및 생활밀착형 위생안전 강화',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스포츠 환경 조성', '글로벌 의료산업 허브도시 조성'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사업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강체육국에서는 올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8개소 조성, 생활체육 현장 지도자 115명 배치, 생활체육교실 440개 교실, 생활체육대회 지원 118회, 시장기(배) 체육대회 17회를 개최 지원 등 부산시민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편의를 위해 올해 부산진구, 동구, 사하구에 국민체육센터가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구덕운동장 재개발도 올해 안에 시작되며, 남구실내빙상장, 부산탁구체육관도 내년이면 완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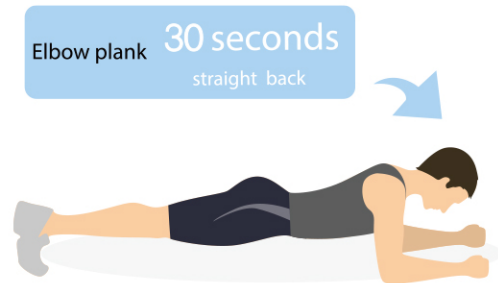
일상생활 속 틈새 운동으로 건강과 활력을

'다이나믹' 부산을 보다 역동적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강체육국의 수장, 안종일 국장은 행정고시(37회)를 통해 1994년 공직을 시작했다. 그런 그에게 맡겨진 건강체육국장이라는 자리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정책과 체육정책을 실시간으로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무척 의미가 크다. 대시민 접촉과 현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안 국장은 그동안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시정 내부의 조정 기능과 내부고객과의 만남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면, 건강체육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보다 현장밀착형 행정과 소통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을 꾸리는 수장으로서 개인적인 건강관리는 어떻게 할까. 운동을 좋아해 주말이면 등산 등을 즐기던 그는 몇 해 전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허리통증을 겪었다. 급기야는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던 차, 치료를 위해 여러 병원을 다니던 중에 '플랭크 운동'을 권유받았다. 치료와 함께 꾸준히 운동한 결과 완전히 회복 될 만큼 큰 효과를 주었던 플랭크 운동. 안국장은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의 하나로, 직접 체험한 '플랭크 운동법'을 추천했다.

안 국장은 "경험상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매일 꾸준히 하되, 버티는 시간을 점차 늘리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운동하기에 딱 좋은 이 계절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지하철한 코스 먼저 내려 걷기 등 틈새 운동으로 건강과 활력을 챙겨볼 것을 시민들에게 권하기도 했다.



[플랭크 운동법]

몸의 중심이 되는 코어근육을 강화하여 비틀어진 몸을 반듯하게 해주는 '플랭크 운동법'은 엎드린 상태에서 양팔을 직각으로 하여 바닥에 놓고, 양 무릎은 바닥에서 떼고 허리와 다리는 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가 된 상태로 30초 버티고 10초 쉬기를 반복하면 된다.



부산 체육의 중흥! 가슴 뛰는 장면의 재현을 위해

부산광역시 건강체육국은 이러한 시민들의 건강 외에도 전문체육 육성지원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꾸준한 육성지원으로 제97회 전국체전 종합6위, 제14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전 종합5위, 제98회 전국 동계체전 종합5위 그리고 실업팀 3개 종목(배구, 검도, 빙상)을 창단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더불어, 생활체육이 전문체육을 뒷받침하고 전문체육 출신이 생활체육을 지도해가는 선진국형 선순환 시스템인 부산광역시 거점스포츠클럽을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체육회가 통합을 이룬 이후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분야가 서로 합심해,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성과들을 거두어 왔다고 말하는 안종일 국장. 그는 지역 기업들이 실업팀을 연이어 창단하면서 체육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점과 전국체전과 동계체전에서 선수들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부산의 체육발전에 대해 밝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안종일 국장은 “그런 측면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구,군 리그전을 통해 왕중왕을 가리는 범시민 클럽대항 왕중왕전, 선진국형 부산광역시 거점스포츠클럽은 부산 생활체육 수준을 한층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강 꿈나무 키우는 마이더스

에어로빅 등 피트니스
대중화에도 앞장



이달의 인터뷰

최인영 신곡초등학교 에어로빅체조 지도자

꿈나무 에어로빅체조 선수를 육성하는 최인영 지도자의 행보는 늘 분주하다.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은 물론, 에어로빅(힙합)스포츠클럽 강습 등 하루 24시간 중 절반 이상을 ‘에어로빅’과 관련된 일로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어로빅체조 꿈나무양성에 온 힘

최인영 지도자는 1997년에 에어로빅체조 국가대표선수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999년 독일(하노버)에서 개최된 세계에어로빅 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획득을 시작으로 각종 세계대회에서 입상도 했다. 그러던 중, 2009년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획득을 마지막으로 선수생활을 은퇴하게 되면서 본격 지도자의 길로 접어들었다.



현재 부산 신곡초등학교 경기지도자로 근무하고 있는 그녀는 와석초 · 민락초 · 신곡중 · 영도중 · 유락여중 · 삼정고등학교에서도 선수를 발굴 · 육성하는 등 에어로빅체조 꿈나무양성을 통한 에어로빅체조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2015년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에어로빅체조 초등부 여자개인 차지원(신곡초)와 중등부3인조에서 박민(신곡중)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가하면, 2016년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중등부5인조 박민(신곡중) 선수의 은메달 획득에 이어 초등부 여자개인 차지원(신곡초) 선수와 초등부3인조에서 차지원 · 문승아 · 박윤(신곡초)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최 지도자는 이에 힘입어 올해도 3년 연속 금메달 획득을 목표로 열심히 꿈나무들의 훈련 지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직한 몸,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지도

한돌이 아닌 어린 꿈나무들을 보다 잘 지도하기 위해 최 지도자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훈련법에 적용시켰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트레이닝 캠프! 매달 캠프를 개최하여 꿈나무 선수들을 캠프에 참여시켜 대표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며, 대표선수들에게 지도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기개발과 실력향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 지도자의 훈련 방식은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있다. 바로, 제 각각의 개성을 살려주는 것! 선수들 저마다의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잘하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개성 뒤에는 지속적인 기초체력훈련과 기술훈련이 무척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최종목표는 올바른 에어로빅체조를 할 수 있도록 한 동작, 한 동작 집중적으로 익히고 배우게 하는데 있다.

이러한 기본기는 최 지도자의 인생철학과도 닮아 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몸은 정직하다!' 라는 신념을 선수시절부터 새기고 있다는 최 지도자는 "본인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며 코치의 말에 집중하면 그만큼의 성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부산하면 에어로빅체조, 에어로빅체조하면 부산’이 되도록!

에어로빅인들은 흔히 인사로 '안녕하세요?'가 아닌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 이에 대해 최 지도자는 "이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에어로빅은 나이에 관계없이 할 수 있고, 전신을 모두 사용해 신체 모든 부분을 발달시켜 주어 에어로빅

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고 최 지도자는 자부했다.

최근에는 에어로빅에서 점차 다양한 운동법들로 발전된 에어로빅댄스, 생활체조, 필룩싱 등 여러 운동법이 개발 적용되는 등 다양한 피트니스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에어로빅의 종합적 운동을 더 알리기 위해 최 지도자는 지난해 에어로빅(힙합)스포츠클럽을 여는 등 에어로빅의 대중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항상 학생들의 입장에서 개성을 존중하며, 효율적인 운동성과와 건강한 심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최 지도자는 "부산광역시 에어로빅과 에어로빅체조, 더 나아가 에어로빅(힙합)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하면 에어로빅, 에어로빅하면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는 말로 앞으로의 계획을 짧지만 강하게 피력했다.



미리 본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오는 5월 27일(토)부터 30일(화)까지 4일간, 충청남도 아산 등 51개 경기장에서 '품어라 행복충남, 뛰어라 대한민국'의 구호아래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개최된다.

초등·중등부의 선수·임원 등 총 17,0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소년체육대회는 총 35개 종목이 개최된다. 세부적으로는 축구, 야구(소프트볼),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등 7개 단체종목과, 육상, 수영, 자전거, 양궁, 사격, 역도, 롤러, 조정, 카누 등 9개 기록종목, 레슬링, 복싱, 씨름, 유도, 태권도 등 5개 체급종목, 펜싱, 검도, 테니스, 탁구, 정구, 배드민턴, 골프, 승마, 체조, 세일링, 볼링, 근대5종, 철인3종(수영·자전거·마라톤), 바둑 등 14개 개인단체 종목으로 경기가 펼쳐진다.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대비하여 강화훈련 중인 현장을 방문하여 필승의 의지를 볼 수 있었다.



부산광역시볼링협회 코치 이 성 훈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볼링을 시작합니다. 성적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훈련기간은 최소 2년으로 자세교정과 체력을 향상시켜 메달을 획득합니다. 보통 초등학교 때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중·고등학교 때 성적내기가 쉽지만 신입회원을 모집하는 부분에서 선수수급이 잘 되지 않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학교 들어가서 훈련을 시작 하게 되면 메달 획득이 정말 어렵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대구 등 타 지역에 비하면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상수업을 받고 볼링장에 오게 되면 연습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예전의 운동부는 수업을 다 받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수업을 모두 진행하고 볼링장에서 학생들이 늦게까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항상 연습시간이 부족하고 선수수급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유망주로는 거성중학교(2) 김민규 선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하여 작년 소년체육대회에 첫 출전을 하였고 올해부터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중학생이라 정신집중 부분에서는 약하지만 이를 극복하여 훈련을 중점적으로 지도 할 생각입니다. 고등부도 부산관광고등학교 볼링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중학교 때부터 볼링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올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14



부산광역시자전거연맹 코치 정 창 훈

부산 자전거 종목에는 선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타는 친구들이 기록을 재는 방식으로 부산대표선발전을 진행합니다. 남자 중등부에서 메달 획득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금메달 획득이 없었지만 단체종목에서 단합이 잘 되는 편이라 올해는 더욱 기대됩니다.

현재 사하중학교 남자부, 감천중학교 여자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노력에 의해서 잘 타는 실력을 갖추게 된 팀입니다. 초등부는 사이클부가 없지만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이번 사이클 대회는 강원도 양양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경기장의 규모가 부산스포원 경륜장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대표 선수들이 작년만큼 자기 기량을 발휘하여 후회 없이 대회에 참가하면 좋겠습니다.





부산광역시육상연맹 부회장 김 만 호

육상은 1인 2종목 출전 가능합니다.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가장 많은 메달이 걸려있는 종목이기는 합니다만, 소년체육대회 종목에서는 메달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년체육대회 육상종목 메달획득의 주요 요인은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체육회의 지원으로 경기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산시육상연맹에서도 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타시·도와 비교하면 부산시는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는 선수 수도 많고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광역시는 선수 저변확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육상은 개인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메달이 걸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메달획득에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장대높이뛰기, 경보, 포환던지기 등에서 금메달을 획득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부산선수단은 2주 동안 합숙훈련을 하였습니다. 한 팀이 되어 단합된 모습으로 서로 협업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여 유익한 훈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광역시펜싱협회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고 펜싱 종목은 부산이 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성적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녀 총 6팀으로 펜싱 전 종목(플리레·에페·사브르)에 참가합니다. 이처럼 부산의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보입니다. 연습이나 훈련과정도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으며 고등학교와 연계도 잘 되어있습니다.

초등부는 30명에서 40명 정도로 많이 활성화 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초등부 시합을 통해 부산펜싱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중학교부터 펜싱을 시작하며 인기종목이 되다보니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펜싱학교나 펜싱클럽에 가서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펜싱종목이 더욱 활성화 되려면 중학교 팀 창단을 통한 선수 수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수가 경쟁하는 곳에서 훌륭한 선수가 발굴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사대부고3 체조선수 오다빈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부산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 하러 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부터 체조를 하였습니다. 시합할 당시 실수도 해보고 힘든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 후배들이 대견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생 체조 선수가 많지만, 시니어들은 많이 없습니다. 힘들어서 그만 두는 경우도 많으나 저처럼 끝까지 선수생활을 하면서 서로 힘을 모아 메달을 획득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7교시(오후 4시30분)까지 수업을 하고 훈련을 시작합니다. 훈련은 기본기와 유연성을 하며 기구 없이 음악을 맞추면서 몸 풀기를 한 후, 선생님과 음악을 맞추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저를 포함해서 2명입니다. 끝까지 부산을 지키면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향후 체조지도자와 심판으로 활동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성지초등학교 핸드볼부 교사 김재민

지난해 2학기부터 4·5학년을 중심으로 부산대표선발전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였습니다. 지난 겨울, 꿈나무대회에 출전하여 경험을 쌓고 방학 기간에 집중훈련을 하였습니다. 3월부터는 전지훈련을 다녀와서 준비를 많이 하였습니다. 연습만 하는 것보다 실전 게임을 해 보는 것이 경기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핸드볼은 강원도와 전라도에 강팀이 있으며 비인기종목이라 선수 수급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핸드볼 경기는 선수층이 얇은 대신 기회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핸드볼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2017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강사교육

11(토) 09:00~16:00 장소 : 코모도호텔 주최 : 대한체육회 주관 : 부산광역시체육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국민체육진흥공단



18

주말 운동을 통한 **청소년기의 스포츠 즐기기!**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강사교육



시체육회는 지난 3월 11일(토)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주말 생활체육학교 강사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강사교육'을 실시했다.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운영은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고, 청소년의 체력 강화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된다. 학생들이 성장기에 학우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어른으로 커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이어서 강사교육을 통해 주말생활체육학교 강사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익히고 학교에서의 지도활동 및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은 토요스포츠데이와 학교체육의 이해, 파워브레인 프로젝트, 아동성폭력 예방과 대처, 스포츠 상해 및 안전의 내용 등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체육수업 지도에 필요한 능력 배양과 새로운 교육내용 및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겸비한 주말생활체육학교 강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을 수료한 강사들은 매주 토요일 부산 지역학교와 구·군체육회의 지정된 장소에서 지도하게 되며, 부산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안·밖 스포츠프로그램을 하게 된다. 총 362개교에서 강사 345명이 축구, 피구, 탁구, 배드민턴, 티볼 등 35개 종목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기봉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생활과 장학관은 새 봄의 정취가 느껴지는 3월, 새학기를 맞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담당할 강사분들과 구·군 담당자분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인사말을 열었다. 이어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는 2014년부터 교육청과 체육회가 나누어서 4년째 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운영해 온 결과 강사들의 열성적인 지도와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은 물론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체육이 성인 위주에서 유소년과 청소년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그만큼 사회적 역할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에도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를 비롯하여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청소년 체육활동지원 사업 등 부산시체육회와 협력하여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수료식 및 총평을 마친 구·군 강사들은 대부분 생활체육 지도자 및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로, 청소년들에게 더욱 신나는 주말을 만들고 동시에 학습지도에 새로운 지침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부산체육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직무연수 개최



시체육회(회장 서병수)는 지난 3월 9일(목)부터 10일(금)까지 양일간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시체육회 송미현 사무처장 및 직원을 비롯한 회원단체 사무국장 등 실무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2017 회원단체 직무연수'를 개최하여 체육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함양하고 회원단체 간 정보교류 및 소속 회원단체로서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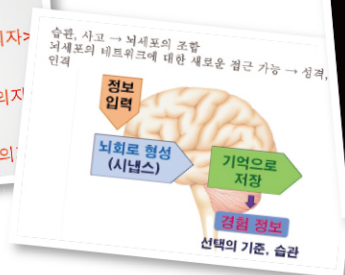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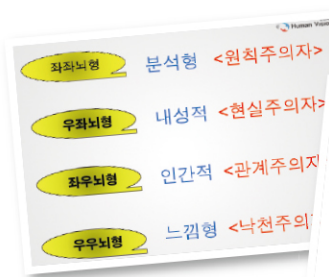
연수 1일차에는 조만태 박사의 ‘스포츠지도자의 브레인 유형별 성향과 휴식관리’ 특강이 진행되었으며 회원단체규정, 회원종목단체육성지원 교육, 전국체전·전국생활체육대축전 안내, 구·군체육회 연간사업안내,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회원종목단체육성지원 교육으로는 사업비 지원 세부지침과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전국체전·전국생활체육대축전 교육에서는 부산선수단 참가와 목표, 예상 전력분석, 추진일정, 도핑검사 관련, 경기장 현황 등을 다루었다. 별도로 이루어진 구·군체육회 교육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시지원금 사업, 중앙지원금 사업으로 구분하여 교육이 이루어졌다. 청탁금지법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매뉴얼,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내용을 다루었다.

2일차에는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문서시스템과 필수과목인 성희롱예방 교육으로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직무연수에 참가한 실무자들에게는 양질의 연수프로그램으로 제공하여 실무능력 및 행정적인 업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시체육회 송미현 사무처장은 “올해는 통합체육회 출범이후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번 연수는 회원단체의 실무능력과 행정력 강화는 물론 각종 현안들을 논의하고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뜻 깊은 자리라 생각한다. 실무자 여러분들

은 부산체육의 미래를 내다보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상호친선을 도모하고, 부산체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자전거 타기의 즐거움을 아는
시민들의 축제 한마당

2017 부산시민자전거대회

22

“자전거를 타는 이 단순한 즐거움에 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존 에프 케네디- ”

새로운 환경건강 패러다임의 주축인 자전거타기를 확산하여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 '2017 부산시민자전거대회'가 지난 4월 8일(토) 화명생태공원 및 국토대장정 자전거전용도로에서 1,500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일반코스과 가족코스로 나뉜 이번 대회는 화명생태공원 민속놀이마당을 출발지점으로, 가족코스는 호포다리를 지나 물금취수장을 반환점으로, 일반코스는 원동 가야진사를 반환점으로 다녀오는 코스로 진행됐다. 특히, 일반코스의 경우 황산강 배랑길은 낙동강 종주 길의 백미로 철길과 주변에 흐드러지게 핀 꽃들의 환상적인 풍경을 자랑한다.

올해 8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경주방식이 아닌 비경쟁 코스 완주방식으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시민모두가 함께 몸과 마음의 여유를 느끼며 부산의 아름다운 종주길을 무사히 완주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매년 따뜻한 봄을 맞아 펼쳐지는 '부산시민자전거대회'는 아름다운 봄 경치와 함께 소속감과 화합을 느낄 수 있는 자전거대회로, 보다 많은 시민이 참가하여 대회를 즐기며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자전거연맹의 김은우 회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진행된 개회식에는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한 백종헌 부산광역시장, 황재관 부산광역시북구청장, 송규정·박희채 시체육회 부회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참가 시민들을 응원하였으며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현장의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었다.

시체육회 서병수 회장은 "행복과 건강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전거는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온 몸의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키는 참 좋은 운동입니다. 몸의 건강 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함께 지켜주기 때문에 더욱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겨우내 움크렸던 몸을 활짝 펴고 햇볕을 쬐고 바람을 쐬며 자연과 하나 되는 기쁨을 만끽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움도 한껏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낙동강 길을 따라 달리며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엑스포추진단에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염원하기 위한 풍선날리기 퍼포먼스를 선보여 대회 분위기를 더욱 빛냈으며 참가자 배부 번호에 따른 경품 추첨을 개회식 마지막 순서로 진행하며 또 다른 재미를 더했다.



일반코스 참가자 정 예 린 부산시여성자전거회 회원
자전거 배운지 1년차가 되었습니다. 올해 부산시민자전거대회에 처음 참가했지만 평지 주행이라 아주 가볍고 부담 없이 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여성자전거회는 평소 범어사, 기장 등 50~60km를 탑니다. 자전거타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도 시작 할 수 있으며 건강을 회복하는데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화창한 봄 날씨에 가족, 친구, 회원, 연인이 함께 참가할 수 있어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일반코스 참가자 팀 투견(중2)

자전거를 타다가 형·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인맥이 넓어지고 지금은 같이 타는 재미도 큼니다. 자전거를 타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운동량이 훨씬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부산시민자전거대회에 참가합니다. 안전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완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 무료교실 운영

지난 4월 1일(토)부터 오는 5월 31일(수)까지 두 달간, 종합운동장 · 화명생태공원 · 요트경기장 · 수영강변공원 · 을숙도생태공원에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2017 자전거 무료교실'을 운영했다. 이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및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함이다. 또한 자전거 인구의 저변확대와 보급 활성화를 통해 시민체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도 보인다.



자전거무료교실 운영은
자전거에 대한 인식전환과
올바른 자전거타기 교육,
올바른 자세와 습관을 위한
실습 교육, 자전거 기초기능
이해를 돕는 조작교육,
응급처치 및 자전거 손질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게 된다.
따뜻한 봄날, 자전거무료교실
운영 현장을 생생하게
파헤쳐 보자.



자전거무료교실 김 진 흥 지도자

1993년도에 자전거를 처음 타보고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길렀습니다.

자전거타기를 시작할 때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전거는 모든 보호 장비 없이는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초급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안전과 자기 방어 교육으로 강습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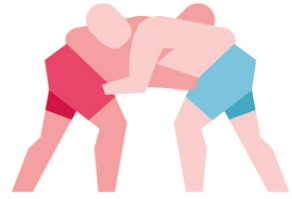
자전거 타기는 초·중·고급 과정을 통하여 꾸준히 운동을 하면 6개월 이후에는 체형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전거가 가진 최대의 장점은 철저한 좌우 밸런스 운동이며 남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자연을 느끼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작을 하여도 관절·허리 운동에도 도움이 되며 요요현상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이자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이 자전거타기 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한 번도 타지 않으신 분들도 잘 타는 것을 볼 때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도 자전거 타기 보급에 앞장서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CEREMONY 01

반여고등학교 씨름부 창단식



26



지난 4월 5일(수) 반여고등학교 2층 강당에서 한국 전통의 민속경기인 씨름의 활성화와 체육교기 연계의 일환으로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육성하고자 '반여고등학교 씨름부 창단식'이 개최되었다.

반여고등학교 서강태 교장은 '꿈을 꾸고 희망을 노래하는 행복한 학교' 반여고등학교에서 씨름부를 창단하는 것은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민속 경기인 씨름에 관심을 가지고 전통의 맥을 이어나가며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과 우리나라 씨름을 빛낼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씨름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1학년 차민수 · 김대완 · 안황수 · 김강민 선수들을 대상으로 창단식이 진행되었다. 현재 반여고등학교에는 실내 강당과 운동장 등의 기초체육훈련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입학생들의 모교인 신곡중학교에 씨름장 시설이 확보되어 주로

신곡중학교에서 훈련하고 있다.

이어서 신곡중 · 운송중 · 연천중학교 등 중등학교 교체육성학교와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학생선수 확보를 함으로써 더욱 기대를 모았다.





CEREMONY 02

해강고등학교 세일링부 창단식



지난 4월 21일(금) 해강고등학교에서 안영균 부산시교육청 건강생활과장, 박성은 해강고등학교 운영위원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세일링부 창단식'이 개최됐다.

김봉련 해강고등학교장은 "올림픽을 4년에 한번 들뜬 마음으로 밤잠을 설쳐가며 보지만 선수는 4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개인과 학교의 수준을 넘어서 국가의 위상에 까지 이를 수 있는 원대한 목표로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체육회와 시교육청의 관심과 후원으로 세일링 종목을 본교에 창단 하면서 꿈과 이상을 푸른 바다에서 마음껏 펼쳐 해양도시 자존심 선양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창단식은 수영강의 끝자락과 해운대 바다가 만나는 해강고등학교에서 김봉련 교장은 부산이 바다에 접하고 있어도 세일링(윈드서핑)부가 없어서 진학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신도중학교 출신 박윤재(1) 학생의 창단식을 거행한 행사였다.

해양도시 부산에 세일링종목을 육성하여 학생들의 특기를 개발하고 미래의 학생들에게 교기로 세일링선수 및 지도자로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CEREMONY 03

중현초등학교 육상부 창단식



28

지난 4월 25일(화) 중현초등학교 중현관에서 '육상부 창단식'이 개최됐다. 이는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신나는 육상부"의 방침에 따라 육상부를 교기 육성하기 위함이다.

황순옥 중현초등학교 교장은 "학생이 신체적·심리적으로 건강하며 학업성취도가 좋을수록 학생역량은 높아집니다. 육상은 모든 스포츠의 근본이 되는 기본 종목이므로 많은 학생들이 육상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선수들의 체력 및 기록 향상을 위해 꾸준히 훈련에 매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학생 개인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과 성적 향상 및 체력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육상지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중현초등학교의 교기로 새롭게 정식 출발하는 육상부는 2015년부터 학교차원의 육상부를 만들어 교내의 다양한 활동과 함께 각종 교외 대회에 적극 참여하여 성과를 드높였다. 특히, 창단 첫해 제15회 교육감배 로드릴레이 대회에서 여초부 구간

1위, 남초부는 종합8위에 입상하였으며 부산초·중학생육상챌린지대회에서 3명이 1위로 입상했다. 그런가하면, 2016년에는 서부소년체육대회에서 포환던지기 1위, 육상챌린지대회, 로드릴레이레이스대회, 부산시초·중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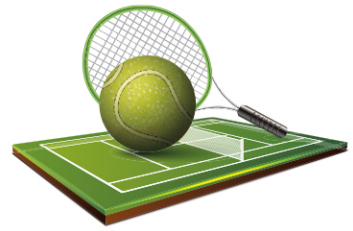
현재 중현육상부는 3, 4, 5, 6학년으로 총 4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선수로 정식 등록을 한 학생은 이연우(3), 김해원(3), 김규리(3), 손인성(4), 여민채(4), 김가은(4), 이영채(4), 박지선(4), 김예주(4), 강승민(5), 김동건(5), 박지은(5), 오진영(5), 최민규(6), 백정윤(6), 한강민(6), 박승현(6), 박남형(6), 김승민(6), 박시후(6), 박예희(6) 등 총 21명이다.

이번 창단식을 통해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열정적으로 자신을 가꾸어가는 꿈의 산실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CEREMONY 04

용문중학교 정구부 창단식



29



정구(Soft Tennis)

테니스에서 파생된 것이다. 테니스가 단단한 경식 공을 사용하는 데 대하여 연식정구라고도 한다. 정구는 1890년 경 테니스용품을 구하기 어렵게 된 일본에서 말랑말랑한 고무공과 가벼운 라켓으로 변형된 테니스를 하게 된 것이 그 시초가 되었다.

국내에 정구가 들어온 것은 1908년, 지금의 재무부인 탁지부(度支部)의 일반 관리들이 친목을 위해 조직하였으며, 바둑·장기·궁사·정구 등의 시설을 갖추고 경기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광복과 함께 조선정구협회가 조직되고 각종 정구대회가 개최되는 등 중학교급 이상의 학교는 물론 관공서와 일반인들에게 레저 및 스포츠로 많은 각광을 받게 되었다.

지난 4월 26일(수) 용문중학교는 학교 체육 활성화로 경기력을 강화하고 학교 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와 우수선수 조기 발굴을 통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각종 대회의 상위입상을 목표로 '용문중학교 정구부 창단식'을 개최했다.

정구부 이규호(1)·정효원(1)·서경원(1) 선수들은 교내 수업을 듣고 주변학교와 연습경기를 통하여 실전 감각을 익히며 줄넘기, 런닝 줄넘기, 전·후위 리시브 연습 및 체력단련 훈련을 받게 된다. 이는 선진 체육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의 경쟁력 있는 체육인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미래핵심역량을 지닌 인재로 되기를 기대해본다.



ATHLETIC MEET

제55회 체육주간기념 생활체육교실 회원체육대회

지난 4월 27일(목)부터 4월 28일(금)까지 체육주간을 기념하고 생활체육교실 회원 간의 친목 및 화합을 도모하고자 실내체육관 외 3개소에서 '제55회 체육주간기념 생활체육교실 회원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승패를 떠나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체력향상을 위해 열렸으며 대회 종목은 탁구, 배드민턴, 요가, 국학기공, 에어로빅으로 진행되었다. 배드민턴은 개인의 기량의 차이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탁구는 반별로, 요가·국학기공·에어로빅은 조별 경연으로 펼쳐졌다.

이날 참가한 실내배드민턴 2반 회원은 친구의 추천으로 시작한 배드민턴을 5년째 치고 있다며, "생활체육교실 회원으로 자부심도 느끼고 회원들 간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우애도 다지는 좋은 대회가 된 것 같습니다. 평소 배드민턴을 치면서 생활의 활력소도 되고 있으며 체력향상에도 좋다고 생각

합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는 치매예방에서도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현재 동평라이온클럽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장배 배드민턴대회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실력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탁구 2반 김순희 회원은 "정년퇴직하고 탁구를 배운지가 1년이 되어갑니다. 주변의 선생님들이 추천으로 시작하였는데 현재 무아지경으로 탁구에 빠져있습니다. 생활체육 탁구교실을 배우면서 승부를 떠나 심신이 편안하게 칠 수 있으며 마음의 안정과 건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탁구 레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매일 탁구를 치다보니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탁구교실의 코치선생님과 동호인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탁구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아시아 세일링워크 개막



지난 4월 28일(금)부터 5월 7일(일)까지 해운대 수영만 일대에서 '부산 아시아 세일링워크'를 개막했다. 아시아 세일링워크에는 3개의 대회로 개최되었으며 '부산슈퍼컵 국제요트대회'를 시작으로 '제23회 한·일 친선 아리랑 요트레이스', '제18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요트대회'로 진행 되었다. 아시아 세일링워크 개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 스포츠 중심도시로서 부산의 가치를 한 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정제욱 대한세일링연맹 회장은 "부산은 '2017 아시아 세일링 워크'와 같은 바다 활동에 대한 모험과 도전이 준비 되어있는 곳이며 국제적인 해양스포츠 문화도시, 축제의 도시로 요트문화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요트인들은 높은 물결이 일어도 바람이 불면 도전감으로 가슴이 설레고, 거친 바닷바람도 인연처럼 느끼며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가르며 펼쳐지는 박진감 넘치는 요트 경기의 매력을 만끽하며 시원하고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하영재 조직위원장은 "올해부터 타 시·도와 차이를 두고 대회를 개최하였기 때문에 아시아 세일링워크 개막의 의미는 더욱 특별합니다. '부산슈퍼컵 국제요트대회'는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회입니다. 격년제로 열리는 '한·일 친선 아리랑요트레이스'는 부산에서 출발해 일본 후쿠오카까지 바람의 힘으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요트계의 마라톤으로 보이며, '부산광역시장배 요트대회'는 초등학교부터 일반부까지 16개 종목 100여 명의 국내 선수가 참가하는 등 세계적인 대회로 성장하는 데 큰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합을 위해 조직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비인기 종목인 세일링이 대외적으로도 더욱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즐기는 스포츠가 되길 바랍니다. 대회 기간동안 날씨와 바람이 좋아서 성적을 떠나 마음껏 즐기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제주에서 맞잡은 손,
함께하는 건강의 봄.

2017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Korea Sport for All Festival, JEJU 2017

2017년 6월 8일(목) - 6월 11일(일), 4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개회식 2017년 6월 9일(금) 17:30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폐회식 2017년 6월 11일(일) 14:30 제주시 탐동 해변공연장

주 최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체육회

주 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2017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부산선수단 규모

→ 1,050명 (참가선수 847명, 본부 203명)



▶ 부산선수단 구성현황 : 36개 종목 847명(선수단 775명, 임원 72명)

연번	종목	인원
계	36종목	847명
1	검도	26명
2	게이트볼	32명
3	골프	10명
4	국학기공	42명
5	그라운드골프	32명
6	농구	22명
7	당구	32명
8	롤러스포츠(인라인스케이팅)	22명
9	배구	30명
10	배드민턴	24명
11	보디빌딩	13명
12	볼링	28명

연번	종목	인원
13	수영	26명
14	수중핀수영(스킨스쿠버)	22명
15	스쿼시	14명
16	씨름	16명
17	야구(경식부)	15명
18	우슈	13명
19	육상	20명
20	자전거	8명
21	정구	26명
22	족구	26명
23	철인3종	12명
24	체조(에어로빅스체조)	42명
25	축구	57명

연번	종목	인원
26	탁구	42명
27	태권도	17명
28	택견	17명
29	테니스	26명
30	파크골프	22명
31	패러글라이딩	17명
32	풋살	32명

[[시범종목]]

33	궁도	17명
34	야구(중경식부)	14명
35	줄넘기	20명
36	핸드볼	13명

한일교류종목

▶ 정식종목 : 32개 종목 (50개 경기장)

연번	종목명	경기일	경기장
1	검도	토, 일	제주체육관
2	게이트볼	토, 일	애향운동장
3	골프	금	오라컨트리클럽
		금	탐라스크리프트연습장
4	국학기공	금, 토	서귀포 학생문화원
5	그라운드골프	목, 금, 토	한림운동장
6	농구	토, 일	조천체육관
		목, 금, 토, 일	구좌체육관
		토, 일	함덕초등학교 체육관
		토, 일	애월 체육관
7	당구	목, 금, 토, 일	제주대학교 체육관
8	배구	토, 일	동흥체육관
9	배드민턴	토, 일	효돈체육관
10	보디빌딩	목, 금, 토, 일	제주북한체육관
11	볼링	수, 목, 금, 토, 일	제주시민회관
		수, 목, 금, 토, 일	제주시민회관
12	수영	토, 일	제주시민회관
13	스쿼시	금, 토, 일	제주시민회관
14	스킨스쿠버	금, 토, 일	제주시민회관
15	씨름	토, 일	제주시민회관
16	야구(경식)	토, 일	제주시민회관
17	에어로빅스체조	금, 토	제주시민회관

연번	종목명	경기일	경기장
18	우슈	토	제주시민회관
19	육상	토, 일	제주시민회관
20	인라인스케이팅	토	제주시민회관
21	자전거	일	제주시민회관
		토	제주시민회관
		토	제주시민회관
22	정구	토, 일	제주시민회관
23	족구	토, 일	제주시민회관
24	철인3종	일	제주시민회관
25	축구	목, 토, 일	제주시민회관
		목, 토	제주시민회관
		목, 금, 토, 일	제주시민회관
		목, 금, 토	제주시민회관
		토, 일	제주시민회관
		토, 일	제주시민회관
		토, 일	제주시민회관
26	탁구	목, 금, 토, 일	제주시민회관
27	태권도	토	제주시민회관
28	택견	금, 토, 일	제주시민회관
29	테니스	토, 일	제주시민회관
		목, 금, 토, 일	제주시민회관
30	파크골프	목, 금, 토	제주시민회관
31	패러글라이딩	목, 금, 토	제주시민회관
32	풋살	토, 일	제주시민회관

▶ 시범종목 : 4개 종목 (5개 경기장)

연번	종목명	경기일	경기장
1	궁도	금, 토	제주시민회관
2	야구(연식)	금, 토, 일	제주시민회관
		금, 토, 일	제주시민회관

연번	종목명	경기일	경기장
3	줄넘기	토	제주시민회관
4	핸드볼	토, 일	제주시민회관

부산국민체육센터 소식

화재 진압 & 대피, 소방훈련

지난 3월 30일(목) 센터 직원과 꿈나무 체능단 전 단원들을 대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체능단 단원들과 회원들을 대피시키고, 화재를 진압하는 모의 훈련으로 비상시 각자의 담당 분야로 나누어져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34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수상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초등학생들의 수영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생존수영 교육이 4개 학교(대신초·부민초·동신초·부민초) 36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내용으로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교육하며 위기상황 시 대처법과 기초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어졌다.



부산국민체육센터 소식

꿈나무체능단 봄소풍

이어서 지난 4월 14일(금) 꿈나무 체능단은 사상 근린공원으로 봄맞이 소풍을 다녀왔다.
따뜻한 날씨 덕분에 서로 어울리고 야외에서 뛰어놀며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북구국민체육센터 소식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난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화명동 소재지 관내 8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물 적응훈련부터 발차기훈련, 호흡법 연습, 자기구조법 등 건강한 체력을 기르며 수상 안전 수칙 및 수영 기능 습득으로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수상사고 발생 시 학생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학생들이 수영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잠재적 소질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계발 및 우수한 수영 선수 발굴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프로그램 운영은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에어로빅, 요가, 배드민턴 등 다양한 생활스포츠 종목을 운영하고 있다.

36



북구국민체육센터 소식

[illegible]

2017년 국민체력100사업
북구스포츠클럽
체력인증센터운영

참여신청 국민체력100 홈페이지(<http://nfa.sports.re.kr>)
관련문의 북구체력인증센터 (☎ 051-362-7008)

구·군체육회 소식

영도구체육회

상반기 생활체육교실운영



38 영도구체육회(회장 어윤태)는 지난 4월 3일(월)부터 오는 6월 15일(금)까지 3개월 간, 해양대학교 수영장 외 5개소에서 130여 명의 영도구민이 참가하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 생활체육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으로는 수영, 요가, 탁구, 에어로빅, 당구, 배드민턴 등 총 6종목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구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부산진구체육회

제36회 부산진구협회장기 춘계축구대회



부산진구체육회(회장 하계열)는 지난 3월 19(일) 황령산레포츠공원 축구장에서 450

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제36회 부산진구협회장기 춘계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그동안 같고 닦은 실력을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경험이 많은 회원이 대다수 참가하여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대회결과 우승-황령축구회, 준우승-북부산축구회, 공동3위-서면축구회·양정축구회, 최우수선수상-조동석(황령), 우수선수상-손상균(북부산) 선수가 차지했다.



동래구체육회

제36회 동래구협회장기 축구대회



동래구체육회(회장 전광우)는 지난 3월 12(일) 동래중학교와 부산환경관리공단에서 9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제36회 동래구협회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호인들은 페어플레이 정신과 함께 좋은 경기력으로 승부를 펼쳤다. 대회결과 옥봉축구회가 우승을 하였으며, 동호인들의 기량과 멋진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남구체육회

생활체육교실 개강 (3월-스피닝, 4월-필라테스)



남구체육회(회장 이종철)는 남구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남구국민체육센터에서 '생활체육교실(3월-스피닝, 4월-필라테스)'을 운영했다. 교실은 남구 구민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운영되었다.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학교밖 프로그램



지난 4월 1일(토)부터 30주 동안 남구 관내 재학 중인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유엔탁구장 외 3개소에서 탁구, 볼링, 골프 등 3개 종목,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에서는 접하기 힘든 체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스포츠와 레저 활동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체력 강화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군체육회 소식

제27회 남구협회장기 춘계배드민턴대회



지난 4월 2일(일) 기장 실내체육관에서 약 600여 명의 동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27회 남구협회장기 춘계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완연한 봄 날씨에 동호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으며, 서로 간의 교류와 화합하는 장이 되었다.

해운대구체육회

제36회 해운대구협회장기 축구대회



해운대구체육회(회장 백선기)는 지난 4월 30일(일) 11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장산인조잔디구장에서 '제36회 해운대구협회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축구대회를 통해 동호인들의 친목도모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3회 해운대구협회장기 족구대회



지난 4월 30일(일) 60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해운대구석대축구장에서 '제13회 해운대구협회장기 족구대회'가 개최됐다. 이는 족구의 대중화에 기여하며, 시민건강과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이바지하였다.

사하구체육회

제19회 사하구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사하구체육회(회장 이경훈)는 지난 3월 19일(일) 강서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동호인의 친선도모를 위한 '제19회 사하구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다. 대회결과 1위-사하클럽, 2위-다대클럽, 3위-승학사하클럽이 차지했다.

제34회 사하구협회장기 축구대회



지난 3월 26일(일) 을숙도축구장에서 '제34회 사하구협회장기 축구대회'가 개최됐다. 대회결과 1위-에덴FC, 2위-상록FC, 3위-다대FC·부민FC가 차지했다.

제23회 사하구협회장배 클럽대항테니스대회



지난 4월 1일(토) 을숙도테니스장 외 보조코트에서 '제23회 사하구협회장배 클럽대항테니스대회'가 개최됐다.

금정구체육회

금정구체육회 정기총회



금정구체육회(회장 원정희)는 지난 3월 10일(금) 금정구청 민방위실전문훈련센터에서 '금정구체육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체육회 임원과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1부 행사로 위촉장 전달, 표창장 시상을 하였고 감사보고에 이어 2016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승인의 건 등이 진행됐다.

금정구족구협회

제7대(통합대)회장 이·취임식



지난 3월 13일(월) 골든웨딩타운에서 '금정구족구협회 제7대(통합대)회장 이·취임식'이 개최되었다. 많은 내·외빈과 동호회 회장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협회와 생활체육 발전에 힘써온 이순종 전 회장의 노고에 박수를 보냈다. 향후 금정구 족구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본다.

구·군체육회 소식

금정구 배드민턴협회 여성부회장 이·취임식



지난 3월 19일(일) 동래초등학교 금정구민체육관에서 '금정구 배드민턴협회 여성부 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이 개최됐다. 이날 내빈과 여성부 임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동호인들은 그동안 여성부에서 회장을 맡았던 박선숙 전 회장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새로 취임하는 정은애 회장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40

금정구축구협회 사무국 개소식

지난 3월 19일(일) 동래초등학교 금정구민체육관에서 '금정구 배드민턴협회 여성부 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이 개최됐다. 이날 내빈과 여성부 임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동호인들은 그동안 여성부에서 회장을 맡았던 박선숙 전 회장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새로 취임하는 정은애 회장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금정농협조합장배 제22회 금정구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지난 3월 19일(일) 동래초등학교 금정구민체육관에서 '금정구 배드민턴협회 여성부 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이 개최됐다. 이날 내빈과 여성부 임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동호인들은 그동안 여성부에서 회장을 맡았던 박선숙 전 회장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새로 취임하는 정은애 회장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연제구체육회

제23회 연제구협회장기 축구대회



연제구체육회(회장 이위준)는 지난 3월 5일(일) 아시아드보조경기장과 환경관리공단에서 동호인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3회 연제구협회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그동안 같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이 되었으며, 경기결과 우승-동성클럽, 준우승-부일클럽이 차지했다.

연제구배드민턴협회 임시총회 및 임원단합대회

지난 4월 2일(일) 금정산성에서 배드민턴 클럽회장 및 총무 등 약40여명의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연제구배드민턴협회 임시총회 및 임원단합대회'가 개최되어 임원들의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연제구토요스포츠클럽사 운영설명회



지난 3월 14일(화) 연제구청 영상회의실에서 부회장을 비롯한 연제구토요스포츠클럽사 및 학교 선생님들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제구토요스포츠클럽사 운영설명회'가 개최됐다.

연제구체육회

임원·회원단체장 수련대회



지난 4월 2일(일) 경북 남산과 운문사에서 임원 및 회원단체장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제구체육회 임원·회원단체장 수련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를 통해 연제구체육회의 발전과 올해도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군체육회 소식

사상구체육회

제15회 사상구협회장기 탁구대회



사상구체육회(회장 송숙희)는 지난 3월 26 일(일) 사상구국민체육센터에서 2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제15회 사상구 협회장기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각종 탁구대회 입상 경험이 많은 동 호인들의 대다수가 참여해 수준 높은 경기 력을 보여줬으며 경기결과 남자단체전은 공동우승-TNT A(한동일)·TNT C(한동일), 공동 3위 우정B(박중근)·스마트A(김성중), 여자단체전은 공동우승-우정A(박중근)·맘B(박옥련), 공동3위-TNT A(한동일)·매 직(장정수), 남자개인전은 우승-우리동네 (김정중), 준우승-스마트(최광식), 여자개인 전은 우승-스마트(노경민), 준우승-스마트 (김옥향)가 차지했다.

제2차 이사회



지난 4월 4일(화) 사상구청 영상회의실에 서 회장, 부회장 및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이사회'가 개최됐다. 이날 사상구 체육회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 고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사상구청장기 체육대회



지난 4월 9일(일) 삼락생태공원에서 '사상 구청장기 테니스·축구·게이트볼·야 구·족구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테니스 17 팀 312명, 축구 10팀 367명, 게이트볼 7팀 67명, 야구 12팀 120명, 족구 9팀 255명이 출전하여 동호인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치는 친목 도모의 장이 되었다.

기장군체육회

기장 미역다시마 전국남녀배구대회



기장군체육회(회장 김결환)는 지난 3월 25 일(토) 기장체육관 주경기장에서 기장의 특 산품인 미역과 다시마를 홍보하고 전국 배구동호인 남녀모두가 우의와 친목을 다 지기 위해 '기장 미역다시마 전국남녀배구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결과 남자부 우승-마산 베스트클럽, 여자부 우승-울산 남구 여성클럽이 차지했다.



회원종목 단체소식

〈부산시검도회〉

제24회 부산광역시회장기 검도대회

지난 4월 9일(일) 기장실내체육관에서 동호인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4회 부산광역시회장기 검도대회'가 개최됐다. 안영학 부산시검도회장은 "검도는 기검체일치의 수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무도라는 점에서 다른 스포츠보다 뛰어난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검도의 기본정신을 잊지 마시고 오늘,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부산시궁도협회〉

제23회 부산광역시협회장기 남녀궁도대회

지난 3월 19일(일) 부산 사직장에서 180여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제23회 부산광역시협회장기 남녀궁도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선수대표는 "궁도는 양궁하고 달라서 손의 감각에서 1mm가 틀어지면 끝 지점에서 1m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집중하고 쏘아야 하고 이런 점에서 쾌감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 평균 적중률은 5발 기준 3발정도 맞습니다. 시수꾼이라고 해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40발을 쏘아도 40발을 다 맞추고 90발을 쏘도 90발을 다 맞습니다. 자기 몸을 통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힘이 똑같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심을 하면 힘이 빠지니까 거리가 짧아집니다. 자기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날려야 합니다. 대신 바람이 불 때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하느냐는 연습이 없으면 헛갈리게 됩니다. 바람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놀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항상 그 각도와 움직임이 몸의 습관처럼 붙으려면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라고 전했다.



회원종목 단체소식

〈부산시그라운드골프협회〉

그라운드골프협회 대의원총회

지난 3월 17일(금) 전포동 성취페에서 부산시그라운드골프협회 대의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라운드골프협회 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6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승인 건과 2017년도 사업계획(안) 및 심의 건으로 진행됐다.

1·2급 공인심판원 연수

이어서 지난 3월 22일(수)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심판원 92명이 참석한 가운데 '1·2급 공인심판원 연수'가 개최됐다. 이날 심판원 직무 이론 및 실기 연수 프로그램으로 부산시게이트볼협회 심판원 77명과 울산시게이트볼협회 심판원 15명이 참석하여 연수가 진행되었다.

제6회 부산광역시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

지난 4월 13일(목)에는 아시아드보조경기장에서 6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부산그라운드골프 동호인 상호간 친목의 기회를 도모하고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 '제6회 부산광역시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가 개최됐다.

부산시그라운드골프협회 조정래 회장은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 그라운드골프 동호인들의 건강한 시민상 구현과 동호인 화합이 충만한 대회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복순 영도구 동호인은 "10년 가까이 그라운드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운대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니기가 불편하여 영도구에도 팀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90살 되시는 최고령자도 계시고, 87세 동호인도 3명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지만 그라운드골프를 칠 수 있는 이유는 야외에서 치다보니 햇빛을 받고 동호인들끼리도 단합이 잘 되어 있으며 관절과 체력운동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전했다.



회원종목 단체소식

〈부산시불링협회〉

부산시불링협회 초대회장 취임식 및 불링인의 밤

지난 3월 17일(금) 금정문화회관 K컨벤션웨딩홀 뷔페에서 부산시불링협회가 더욱 더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부산시불링협회 초대회장 취임식 및 불링인의 밤'이 개최됐다.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부산MBC 스포츠 중계석 30주년 기념'의 뜻으로 조성두 통합 초대회장이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44

〈부산시산악연맹〉

제30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금정스포츠클라이밍대회

지난 4월 15일(토)부터 4월 16일(일)까지 북구 인공암벽장에서 '제30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금정스포츠클라이밍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일반부, 주니어부, 유스부A·B팀이 참가하였으며 대한산악연맹의 스포츠클라이밍경기 규정으로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회원종목 단체소식

〈부산시스쿼시연맹〉

제1회 부산광역시연맹회장배 스쿼시대회

지난 3월 25일(토)부터 3월 26일(일)까지 경성대학교 및 부산스쿼시클럽에서 스쿼시 동호인의 저변확대와 스쿼시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제1회 통합 부산광역시연맹회장배 스쿼시대회'가 개최됐다.

이규민 부산스쿼시 동호인은 "5년 전 다이어트 목적으로 스쿼시를 찾게 되었습니다. 스쿼시는 매력이 많은 운동입니다. 다른 운동에 비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결과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1년 정도 꾸준히 반복하고 연습을 하니 실력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좋은 점수가 나오려면 혼자서 반복 연습하여야 하며 코치님께도 많이 물어보는 것이 방법입니다. 앞으로의 스쿼시의 발전을 위해 대회가 많이 개최 되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의 관심과 클럽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스쿼시는 남녀노소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실내에서 즐길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 및 전신운동으로서 근력, 심폐지구력 등 종합적으로 체력증진을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또한 분당 15칼로리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시킬 수 있어 45분 정도의 운동시간으로 300~400칼로리 수준의 운동량을 확인 할 수 있다.

회원종목 단체소식

〈부산시씨름협회〉

제38회 부산광역시협회장기씨름대회 및 2017년도 부산광역시소년체육대회

지난 4월 1일(토) 꽃마루 씨름체육관에서 '제38회 부산광역시협회장기씨름대회 및 2017년도 부산광역시소년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최현돌 부산시씨름협회장은 "이번 대회는 우리의 전통 스포츠인 씨름의 보급과 다양한 스포츠 활동의 참여로 인성을 배우고 학교체육의 균형적인 육성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전했다. 대회는 초·중등부 단체전 및 개인전, 꿈나무 씨름왕 남자부와 여자부 등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부산시축구협회〉

제36회 부산광역시협회장기 및 대선블루배 축구대회

지난 4월 2일(일) 화명축구장에서 축구동호인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6회 부산광역시협회장기 및 대선블루배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개최됐다. 부산시축구협회는 "대회의 승패를 떠나 새로운 미래의 주역으로서 이상을 높이고, 자신의 미래를 향한 길을 더욱 밝히는 계기가 되며, 축구인의 친선과 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회원종목 단체소식

〈부산시탁구협회〉

제22회 부산광역시협회장기 탁구대회

지난 3월 4일(토)부터 3월 5일(일)까지 양일간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제22회 부산광역시협회장기 탁구대회'가 개최됐다. 부산시탁구협회 양재생 회장은 "체육 양단체 통합 후 처음 치러지는 협회장배탁구대회에 최대 규모인 연인원 2,6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탁구에 대한 열정과 화합의 결과이며, 우리 협회의 무한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올해는 모든 대회를 전산화하고 실시간으로 출전선수가 시합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향후 전문체육과 동호인체육을 아우르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 할 것이며 모두가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며 대회를 전했다.



〈부산시태권도협회〉

제37회 부산광역시장배 태권도대회 및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부산대표 1차 선발전

지난 4월 22일(토)부터 4월 23일(일)까지 동의대학교 효민체육관에서 '제37회 부산광역시장배 태권도대회 및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부산대표 1차 선발전'이 개최됐다. 이날 김상진 부산시태권도협회장은 "수련장에서 땀 흘려 갈고 닦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태권도 정신에 입각하여 정정당당히 겨루어 태권도의 미래를 책임질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이 되어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금정고등학교 이진훈 선수(3)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부 팀의 기본기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연습하다 보니 초6·중3·고2 시기에 실력이 가장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전국대회 출전을 하여 실전 경험을 많이 쌓았으며 올해 전국체전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고등부 태권도는 5~6개 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부산대표로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내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5월 13일(토)부터 5월14일(일)까지 양일간 동의대학교 효민체육관에서 600명의 동호인이 참가하는 '제37회 부산광역시장배 태권도대회'가 개최되며 대회를 통해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회원종목 단체소식

〈부산시테니스협회〉

2017부산광역시장배 여성클럽테니스대회

지난 3월 17일(금) 종합실내테니스장에서 '2017 부산광역시장배 여성클럽테니스대회'가 개최됐다. 이승희 부산포에버클럽 동호인은 "테니스를 20년 정도 쳤습니다. 그동안의 부산시장배 테니스대회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립테니스장이 실내로 건립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부산시장배 여성부테니스대회입니다.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테니스 동호인들이나 클럽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테니스클럽이 활성화 되어 사직실내테니스장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전했다.



〈부산시플라잉디스크연맹〉

부산시플라잉디스크연맹 - 일본시즈오카장애인플라잉디스크협회 국제교류 업무협약

지난 3월 24일(금)부터 3월 25일(토)까지 한마음스포츠허브 및 부산시플라잉디스크시연맹 사무국에서 부산시와 시즈오카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플라잉디스크 발전을 목적으로 '부산시플라잉디스크연맹-일본시즈오카장애인플라잉디스크협회 국제교류 업무협약식'이 개최됐다.

시즈오카장애인플라잉디스크협회의 오츠카(yasuo otska) 이사장과 시즈오카현의 공무원인 사와이(sawai toru)씨가 부산에 방문하며 부산시플라잉디스크연맹 임원들과 협약식을 가졌다. 이어서 장애인 학생들에게 일본 장애인협회에서 대회로 진행하는 장애인 플라잉디스크의 '디스턴스'와 '엑컬러시'를 강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교류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부산지역 장애인센터나 복지관에 재능기부 형태의 강습으로 활약 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종목 단체소식

〈부산시합기도협회〉

제15회 부산광역시장기 합기도선수권대회

지난 4월 1일(토)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제15회 부산광역시장기 합기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됐다. 부산시합기도협회 김병희 회장은 "평소 같고 닳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 할 뿐 아니라 진정한 무도인으로서 절도와 예절 바른 무도정신이 물씬 베어나는 자리가 되어 합기도인 상호간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대회사를 전했다.



※ 합기도 정신

모난 인격을 원만하게 변환시키고 강한 것을 부드러운 흐름으로 제압하며 어지러운 분쟁을 하나로 화합시키는 심신 도야의 무예이다.

※ 합기도의 3대원리

- 유(流) : 힘의 흐름에 따라 동작을 행하여 힘의 흐름을 거스리지 않게 동작을 행하고, 힘의 흐름이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 되도록 해야 한다.
- 원(圓) : 상대방으로부터 나오는 기술(技術)과 동작은 원을 사용하여 처리토록하며 상대방으로부터 가해지는 힘의 흐름을 원을 이용하여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한다.
- 화(和) : 상대의 동작과 화합하여 동작을 행하며 무리한 억지 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 힘의 배가를노리고, 마음도 화의 정신에 입각하여 수양을 쌓는다면 다툼이나 분쟁이 없어진다.

부산시정 정보자료 체육정책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News Briefing

‘스마트한 스포츠인이 되자’ 국가대표 선수 소양교육 실시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 소양교육 실시 (2017.03.20)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지난 3월 21일(화)부터 22일(수)까지 태릉선수촌 및 진천선수촌에서 SBS 스포츠부 권중오 기자를 초빙하여 입촌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정기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스마트한 스포츠인이 되자’라는 주제로 2017년 대한민국 스포츠가 당면한 현실을 소개하고 국가대표선수과 지도자가 가져야할 비전을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유익하고 다양한 주제의 소양교육을 매월 태릉선수촌과 진천선수촌에서 개최하고 있다.

50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 워크숍 개최

2017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 워크숍 개최 (2017.03.28)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2017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 워크숍’을 지난 3월 30일(목)부터 4월 1일(토)까지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개최했다. 대한체육회는 학교운동부 선수들이 학생선수 시절부터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받아 선수은퇴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진로교육을 진행할 은퇴선수 출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운동선수 경력개발 교육을 위한 강의, 은퇴선수지원 사업소개, 강의기법, 강의 시연 및 평가, 2016 진로교육 사례발표, 분임토의 및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을 수료한 전문인력과 대한체육회 직업상담사가 2017년 고등학교 운동부 2,9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7 OS/OCA 지역별 포럼’ 개최 결과

2017 OS/OCA 지역별 포럼 개최 (2017.03.30)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지난 3월 28일(화)부터 29일(수)까지 인천에서 IOC OS(올림픽 솔리다리티) 및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주요 관계자, 동·동남·중앙아시아 지역 23개국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단 등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7~2020년 올림픽솔리다리티’ 계획 설명 및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대회’ 안내를 주제로 ‘2017 OS/OCA 지역별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첫날에는 대한체육회 전총괄 사무총장 주최로 OCA 명예 종신 부회장인 지중 웨이(Mr. Jizhong Wei)를 비롯한 각국의 대표단을 환영하는 만찬이 개최되었다. 또한 포럼이 개최된 이틀 동안 IOC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NOC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선수·코치 프로그램, 올림픽 가치 진흥 프로그램, 올림픽대회 참가 지원, NOC 관리 및 지식공유, 재무 관리, 포럼 및 특별 프로젝트 지원 등에 대한 세부 안내 및 참가국 간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2017 OS/OCA 지역별 포럼 참가국가 현황 : 23개국〉

- 중앙아시아(5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 동남아시아(11개): 브루나이, 미얀마,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동티모르
- 동아시아(7개):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몽골

유소년 축구의 튼튼한 ‘뿌리’ 만든다

유소년축구리그(I-리그)개막 (2017.04.06)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주최하고,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가 주관하는 유소년축구리그(I-리그)가 지난 4월 8일(토) 강원도 철원종합운동장에서 개막식을 가지고, 6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I-리그의 “I”는 infinite(무한한), imagine(상상하다), impress(감동하다)의 영문 이니셜로 아이들에게 무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리그, 상상하고 꿈꾸며 감동하는 유소년축구 리그를 의미한다.

올해 전국 35개 지역의 지정운동장에서 펼쳐지며, 850여 개 팀, 12,000여 명의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축구클럽이 참가하게 된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월 1회씩 지역별 자체 리그를 실시하며, 리그는 연령대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올해는 개인별로 볼 소유 시간을 늘리기 위해 3인제, 5인제, 8인제 축구 경기방식을 도입하고 참가 선수들의 체력수준을 감안하여 연령별로 경기장 규모를 성인구장의 최대 8분의 1에서 최소 2분의 1로 조정하여 진행된다.

더불어 오는 7월 24일(월)부터 26일(수)까지 리그에 참가한 180여 팀, 총 2,500여 명을 대상으로 2017 I-리그 여름축구축제도 개최 될 예정이다. 리그에서 발굴된 우수 선수에게는 해외 유명구단의 유소년 전문 지도자를 초청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는 유소년이 가장 접하기 쉬운 축구종목의 저변확대를 통해 유소년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고, 기존의 승리지상주의, 성적지상주의를 탈피하여 축구를 통해 유소년기에 필요한 감성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부산시정 정보자료 체육정책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News Briefing

예술가들이 평창올림픽을 응원하는 18가지 방법

- 평창 문화올림픽 인증 프로그램' 펼쳐져

‘평창 문화올림픽 인증사업’의 18개 프로그램 개막 (2017.04.06)

평창동계올림픽 · 패럴림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창 문화올림픽 인증사업’의 18개 프로그램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평창 문화올림픽 인증사업은 평창 동계올림픽 · 패럴림픽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가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와 함께 진행하는 국비 공모 사업이다. 선정된 문화예술행사들에는 문화올림픽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문체부는 ‘2017년도 평창문화올림픽 인증사업’ 공모를 통해 음악, 전통, 무용, 시각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8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선정된 프로그램들은 지난 4월 6일(목)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열렸으며 ‘아리랑 아라리요’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국내 주요도시는 물론 러시아, 핀란드 등 해외 동계스포츠 강국을 순회하며 펼쳐질 예정이다.

첫 무대인 ‘아리랑 아라리요’는 아리랑을 합창,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국악 등 다양한 장르로 해석한 공연이다. 소리꾼 오정해와 ‘우생순’의 신화를 쓴 전 핸드볼 국가대표 임오경,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제갈성렬 등이 참여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공식 주제가인 평창의 꿈 (Dream of Pyeong Chang) 등을 노래하며 하나 된 열정의 무대를 선보인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대규모 공연 · 전시도 진행된다. 이이남 작가의 국민 참여형 미디어예술 전시인 ‘평창을 바라본다 2017’이 대표적이다. 이 미술전은 광장에 설치된 미디어 팝업스토어에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스캔되어 평창동계올림픽 현장을 재구성한 미디어 벽에 펼쳐지는 방식이다. 서울역광장, 홍대, 부산 마린시티, 대구 동성로,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광장 등 전국의 주요 광장을 순회하며 4월부터 11월까지 열린다.

문화올림픽은 해외에서도 진행된다. 동계스포츠 강국인 러시아(6월), 체코(8월), 핀란드(9월) 등에서 한국의 전통예술가들과 현지 오케스트라가 협연한 한국 음악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예술가들의 참여가 평창동계올림픽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1년간 이어질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17 대한민국 체육인 대회’ 개최

「2017 대한민국 체육인대회」 개최 (2017.04.07)

지난 4월 9일(일)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를 포함한 13개 체육 단체가 주최하고, ‘함께하는 스포츠포럼’과 ‘체육주권 확립을 위한 희망포럼’이 주관하는 ‘2017 대한민국 체육인대회’가 체육학자, 체육 유관단체 관계자 및 일선 현장 지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는 공정한 스포츠생태계를 복원하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스포츠지도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체육인들이 지혜와 결의를 다지는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공정한 체육 조성 및 위상 제고”의 주제로 각계각층의 체육인 7명이 지정발언을 하고, 참석자들의 자유발언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국민을 위한 체육주권 확립과 스포츠의 적폐청산 등 스포츠를 국민의 기본권리로 선언하는 ‘2017 대한민국 체육인대회’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자 전원이 결의문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져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결의문 낭독 후, 3가지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공정한 스포츠생태계 실천하기”(김정호 서울대학교 교수), “체육 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스포츠의 경제·사회적 가치 극대화 방안”(한남희 고려대학교 교수), “차기 정부 체육정책의 과제”(성문정 한국스포츠개발원 수석연구원)를 주제로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 체육발전의 주역, 전국 체육인 한 자리에 모인다

2017 대한체육회 및 시·도(시·군·구)체육회 임직원 워크숍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교육센터에서 개최 (2017.04.14)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지난 4월 15일(토)부터 16일(일)까지 지역의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 체육인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2017 대한체육회 및 시·도(시·군·구)체육회 임직원 워크숍’을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

지난해 통합 대한체육회가 출범한 이후,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회장단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워크숍에는 대한체육회 임원, 분과위원장과 17개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임직원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체육계 각층의 바램을 모아 만든 한국체육 미래의 지표인 ‘아젠다 2020’의 주요과제에 대하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기원 결의를 다짐하는 자리도 가졌다.

최고가 되기 위해 꿈을 꾸다

손연재, 손흥민, 박인비 선수

최고가 되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스포츠 선수들의 기량향상을 위한 노고는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는 한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의 한계를 허물고, 올라갈수록 까치발을 내딛어야 하는 현실은 차라리 고통에 가까울 지도 모른다. 최고가 되기 위해 매일 같이 꿈을 꾸는 스포츠선수들 그리고 수많은 꿈나무들.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먼저 같은 길을 걸어간 이들의 이야기와 그 과정에서의 동질감이 아닐까 싶다.

지면에 게재된 3인은 여론조사 전문기업인 '한국갤럽'이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2016년을 빛낸 스포츠 선수'를 조사한 결과에서 1위에서 3위로 선정된 이들이다.



참조자료

'손흥민, 한 단계 더 성장해야하는 이유' 한국스포츠경제, 2017. 3. 27일자
'손흥민 성장스토리' 육민관중 NO.9, 대한민국 NO.9 되다' 중앙일보, 2014. 12. 24일자
韓 리듬체조 역사 바꾼 손연재, 영광과 눈물의 17년' 스포츠 타임, 2017. 2. 18일자
'손연재, 오랜 역경의 시간을 딛고 드디어 '금빛' 서막을 열다' 투데이신문, 2014. 4. 25일자
'인물탐구 - 프로골퍼 박인비, 할아버지 '우승 소원' 이뤄 기뻐' 뉴스포스트, 2013. 2. 28일자
'박인비의 퍼트 비결?' 골프한국, 프로들의 레슨
'세계 최초 그랜드슬램 '골프 여제' 박인비' 서울경제, 2016. 10. 30일자

한국 리듬체조의 새 이정표를 새기다 손연재 선수

한국 리듬체조 역사를 홀로 바꿔 온 손연재는 지난 17년 동안 매트 위에서 혼신의 연기를 펼치고 지난 2월 은퇴 후 매트를 떠났다. 6살 때 리듬체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손연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리듬체조대회에서 6년 연속 1위를 하면서 리듬체조계의 꿈나무로 주요 국내 대회를 휩쓸었다.

그러던 그녀는 2009년 크로아티아 챌린저 주니어에서 우승했다. 국제 대회에서 첫 정상에 오른 순간이었다. 이후 2010년 시니어 무대에 데뷔한 뒤 세계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2010년 국제체조연맹(FIG) 모스크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손연재는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처음 출전한 시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손연재는 32위에 그친 것이다. 이 경험은 손연재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됐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따며 자신감을 얻은 그녀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한다. 이듬해 그녀는 자신의 훈련지를 러시아 노보고르스크 리듬체조 훈련장으로 옮겼다. 세계무대로의 도전이 힘들 것이라고 여겨졌던 불가능에 그녀는 과감하게 도전했고 쟁쟁한 선수들 틈에서 맘을 흘리며 급성장한다. FIG 리듬체조 월드컵에서 메달을 따기 시작한 손연재는 2013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월드컵 파이널 후프 종목에서 은메달, 리본 종목에서 동메달을 또 같은 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종합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2014 국제체조 연맹 리듬체조 월드컵 시리즈 리스본 대회에서 당당히 개인종합 우승을 이뤄내며 한국 리듬체조 계에 한 획을 그었다.

뒤이어 그녀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5위에 올랐다. 이 종목 최연소 선수였던 그는 기대 이상의 성적표를 받았다. 곤봉에서 아쉽게 실수를 했지만 나머지 종목에서 완벽한 경기를 펼치며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린 것이다.

이후에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손연재는 덩센유예를 제치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한국 리듬체조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차지한 그녀는 제8회 리듬체조 아시아선수권대회 개인종합 금메달, 모스크바 리듬체조 그랑프리 개인종합 은메달, 2016 리우올림픽에 도전, 종합 4위를 차지했다. 한국 리듬체조 사상 올림픽 최고 성적이었다.

자기 스스로에게 몇점을 주고 싶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돌이켜보면 정말 잘 참았던 것 같다. 100점을 주고 싶다”며 수줍게 웃었다는 손연재 그녀는 철저한 관리와 꾸준한 재활로 부상을 이겨 내며 한국 리듬체조 역사를 홀로 썼다.

이제는 매트를 떠났지만 또다른 모습으로 리듬체조를 향한 그녀의 열정이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미지 사진

유럽 축구계에서 펄펄 나는 기록제조기 손흥민 선수

16세에 독일 진출, 18세에 국가대표 및 분데스리가 데뷔, 22세에 UEFA 챔피언스리그 득점, 23세에 토트넘 이적, 24세에 아시아 최초 EPL(영국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 손흥민(토트넘홋스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아시아 축구선수가 넣은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새로 썼다.

손흥민은 유럽 무대에 진출한 한국인 공격수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기록 제조기'다. 그는 함부르크SV 시절이던 2010년 분데스리가 데뷔전에서 만 18세의 나이로 데뷔골을 터뜨리며 39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팀 내 최연소 리그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런가하면, 손흥민은 레버쿠젠 시절이던 2014~2015 시즌에는 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를 상대로 두 골을 터뜨리며 한국인 최초로 UEFA 챔피언스리그 멀티골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프리미어리그(EPL) 아시아 선수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을 세우며, 거스 히딩크를 비롯해 그에게는 최근 각계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다.

유소년 축구선수들의 성장 표본이라 불리는 손흥민의 이러한 실력은 남들과 다른 어린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전직 축구 선수였던 '손웅정축구아카데미' 총감독 손웅정 씨는 손 선수의 아버지다. 이런 아버지의 특별지도를 받으며 초등학교 5학년 때 본격적으로 매일 같이 훈련을 했다는 손흥민 선수. 직접 개발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축구의 기본기를 가르쳤다. 규율보다는 창의력에 중점을 둔 교육법은 지금의 손흥민이 톡톡 튀는 플레이를 시도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된다.

그런가하면, 손 선수가 기본기에 충실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 손웅정 씨는 인터뷰에서 8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정식경기에 안 내보냈으며 "매일 6시간씩 오로지 기본기만 가르쳤다"고 말하기도 했다. 매일 함께 훈련을 하며, 기본기를 다진 부자. 손흥민 선수의 성공 뒤에는 조력자 아버지의 노력이 함께 있었다. 그는 지금도 아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건너가 아들의 훈련과 체력관리 등 모든 것을 챙기고 있다.

2013년 독일 레버쿠젠으로 이적했을 당시 그는 아들을 더욱 강하게 몰아붙였다고 했다. 어물쩍거리다가는 레버쿠젠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아들이 행복하게 선수 생활할 수 있는 곳이면 어느 리그든 간다고 인터뷰에서 골잘 말하는 아버지. 그는 "앞으로 10년을 보자고, 10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도록 관리를 해보자"고 손흥민 선수를 다독인다. 이런 아버지와 함께할 손흥민 선수. 잉글랜드 무대에서 다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그가 지금의 기세를 이어가며 대기록을 작성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피나는 연습으로 컴퓨터 퍼팅 선보이는 골프여제 박인비 선수

세계 최초 그랜드슬램을 기록한 '골프 여제' 박인비(KB금융그룹) 선수. 2007년 데뷔한 그녀는 2014년에는 63년 만의 메이저대회 3연속 우승(나비스코 챔피언십, LPGA 챔피언십, US여자오픈), 2015년에는 아시아 선수 최초의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 그리고 2016년 6월에는 최연소로 LPGA 명예의 전당에 입회, 그해 8월에는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목에 걸어 사상 처음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4개 메이저대회 우승과 올림픽 금메달)을 달성하는 등 세계 골프 역사를 새롭게 썼다.

박인비가 이렇게 세계적인 골프선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데는 할아버지의 힘이 컸다. 골프광이던 박인비의 할아버지 덕분에 온 가족이 골프매니아가 되었던 것. 이러한 영향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박인비는 아버지와 손을 잡고 골프의 세계에 자연스럽게 입문할 수 있었다. 특히, 할아버지는 박인비의 재능을 엿보고 자주 필드에 데리고 다녔다. 그렇게 골프채를 잡은 지 2년만에서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자신감과 흥미가 생겼던 박인비는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골프 유학을 떠났다.



이후 그녀는 플로리다와 라스베이거스에서 학업을 이수하며 체계적인 골프 교육을 받았다. 유학을 떠난 이듬해 박인비는 S주니어선수권 우승을 하며 올해의 주니어 선수에 선정되며 주목을 끌었다. 또한 미국주니어골프협회(AJGA)에서 통산 9승을 기록하면서 주니어 올아메리칸에도 5회나 선정기도 했다. 2006년 4월에는 드디어 프로로 전향했으며, 2007년 본격적으로 LPGA투어에 합류했다. 그리고선 2008년 19살 나이로 LPGA US 여자오픈골프에서 우승을 거두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한국인으로는 다섯 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이었다. 이후 박인비는 한국어자골프의 간판 스타로 떠오른 것이다.

'컴퓨터 퍼팅'으로 불릴 정도로 정확한 퍼팅을 펼치는 박인비는 한 대회에서 22개의 퍼팅만을 하며 우승한 기록도 있다.

박인비는 실전에서 그린의 색깔을 유심히 본다고 한다. 그녀에 따르면, 대체로 옅은 색의 그린은 풀을 깎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스피드가 빠른 편이고 색이 짙으면 좀더 느리다는 설명이다.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퍼트를 잘 하는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박인비는 명답을 남겼다. "나 역시 어떤 날은 라이가 다 보이고, 잘 들어가는 날이 있다. 반대로 하나도 안 보이고 안 되는 날도 있다. 퍼팅이란 게 아무 이유 없이 안 될 때가 있다. 기술적인 것보다도 퍼트할 때 집중을 잘 하려고 하고, 잘 안 될 때는 겸허하게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그게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말했다는 박인비 선수. 잔디의 결과 누운방향, 색깔만 봐도 거리 감각을 알 수 있다는 그녀의 퍼팅 실력은 무한한 관찰과 연습 그리고 이러한 겸손의 자세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지 사진

부산 바다를 '동작'으로 즐기다

시원한 여름여행_ 부산 여름 레포트

여름을 조금 다양하게 즐기는 법
바다를 조금 색다르게 즐기는 법
보는 바다를 누비고 즐기다 보면
부산 바다는 어느새 내 것이 된다.



서핑

언제부터가 부산에는 서핑의 매력에 빠진 전국의 서퍼들이 몰려들고 있다. 프로뿐만 아니라 초보자들은 해변에 위치한 서핑 스쿨에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특히, 송정해수욕장은 지형이 알고 모래바닥으로 되어 있어 부상의 위험에서 벗어나 서핑을 즐길 수 있다.



모터보트

관광객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누리는 모터보트는 진한 물 내음을 맡으며 짜릿한 스피드를 만끽할 수 있다. 광안대교와 해운대 마린시티가 한눈에 들어오는 풍광은 시각적으로도 즐겁다.



윈드서핑

돛을 잡고 바람의 강약에 맞추어 균형을 잡으면서 세일링하는 윈드서핑은 땅에서는 느낄 수 없는 질주감을 맛볼 수 있다. 사람과 바람, 보드와 세일이 하나가 되어 부산 바다를 느껴보자.



바나나보트

바나나 모양의 튜브보트를 매달아 타는 바나나보트는 수상스키와도 유사하고, 스피드를 즐기며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는 면에서는 래프팅과도 유사하다. 5인~7인 또는 10인 1조가 되어 서로 호흡을 맞추는 레포츠라 더 흥미롭다.



카약

카약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수면에서 유유자적하게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 스포츠다. 편안해 보이지만, 카약이 뒤집어지면 위험할 수 있어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수다. 부산은 특히, 송도해수욕장이 카약의 명소로 알려져 있다.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

부산 해양레포츠 주요시설 현황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

- 위치 _ 수영구 광안해변로 54번길 222
(광안리 해수욕장 남천해변공원 앞)
윈드서핑, 모터보트, 바나나보트, 요트 등
- 문의 _ 051-622-0201

부산광역시 요트학교

- 위치 _ 해운대구 우동 1393(요트경기장 내)
딩기, 크루저요트,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렌탈 등
- 문의 _ 051-747-1768

더베이101

- 위치 _ 해운대구 우동 747-6~10 일원
종합해양레저스포츠시설
- 문의 _ 051-726-8855, 070-7864-1337

송도해양레포츠센터

- 위치 _ 서구 송도해변로 50(송도해수욕장)
요트, 보트, 씨카약투어링, 스쿠버, 수상스키 등
체험, 교육
- 문의 _ 051-717-2883

요트경기장

- 위치 _ 해운대구 우동 1393번지(요트경기장 내)
요보트정박, 대회개최, 요트협회아카데미 교실,
요트학교운영 등
- 문의 _ 051-740-2211

수영강선템마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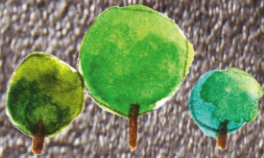
- 위치 _ 해운대구 우동 1494번지(수영강 나루공원 일원)
레프팅, 카약 등 레포츠 교육
- 문의 _ 051-742-8600

송정서핑학교

- 위치 _ 해운대구 송정해변로54
서핑 강습 및 렌탈
- 문의 _ 051-704-0664



더베이101



무더울 땐, 장어먹고 힘!

나날이 더워지고 있는 요즘. 늦봄에서 초여름까지, 애매한 이 시기에는 무엇을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될까? 음식도 알고 먹으면 그만큼 더 맛있고, 더 잘 즐길 수 있다. 부산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친근한 어종인 장어! 그런 의미에서 알고 보면 더 “센” 장어의 힘을 소개한다.

바다장어와 민물장어의 구분은?

바다장어와 민물장어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어종이다. 바다장어는 흔히 ‘아나고’라고 불리는 붕장어로, 수심 70~100m의 바다에서 잡으며 참바닷장어, 해장뽕어라고도 불린다. 반면, 민물장어는 뱀장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민물에 살지만 깊은 바다에 가서 알을 낳으며, 1~2년 바다에 살다가 봄철에 강을 거슬러 올라온다.



장어, 종류와 특징은?



붕장어

장어는 4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 붕장어는 기름기가 뱀장어의 절반 정도이며 살은 두툼하다. 다른 장어와 다르게 각 옆줄구멍이 꼬리부분까지 매우 뚜렷한 흰 점이 있는 것이 특징인 붕장어는 잘게 썰어 물기를 꼭 짜서 회로 먹거나 탕으로 먹으면 그만이다.



갯장어

‘하모’라고 불리는 갯장어는 청정해역에서 서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도와 전라도 남해안 일대에서 주로 잡힌다. 깊은 바다에 서식하다 산란 시 남해안 연안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양식을 할 수 없는 갯장어는 역세고 긴 송곳니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야채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인 갯장어는 6월이 제철이다.



뱀장어

장어류 가운데 유일하게 바다와 강을 오가며 사는 뱀장어는 누런빛, 검은빛 등 여러 가지다. 바다에서 하천으로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포획하여 성어로 양식하는 방법으로 출하되고 있는 뱀장어는 주로 양념구이 형태로 많이 먹는다.



먹장어

일명 ‘곰장어’로 부산 사람들이 즐겨먹는 먹장어는 몸이 가늘고 긴 원통형이 특징이다. 포장마차의 으뜸 메뉴이기도 한 먹장어는 양념구이, 소금구이, 매운탕 등 어떻게 먹어도 맛있지만 불 맛이 가미된 짬뽕구이로 즐긴다면 더 담백하고 고소하다.

장어, 대체 어떤 효능이 있길래?

정약전의 『자산어보(현산어보)』에서는 장어의 효능에 대해 ‘오랫동안 설사를 하는 사람은 이 고기로 죽을 끓여 먹으면 이내 낫는다’라고 돼 있다. 그런가하면,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는 장어는 오장을 보하고 피로를 다스린다고 나온다.

실제로 장어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원기회복과 성인병 예방에 좋다. 또 생선 중 비타민A 함량이 가장 높은 장어는 몸의 저항력에 도움이 되며, 장어에 함유된 비타민 E는 체내 산화작용을 억제해 노화를 방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 흔히 장어는 꼬리를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은 속설일 뿐이다.
- 붕장어 회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뒤 먹어야 탈이 없다.
- 장어는 고단백 식품이긴 하지만, 과다섭취 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
- 지질함량이 높기 때문에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게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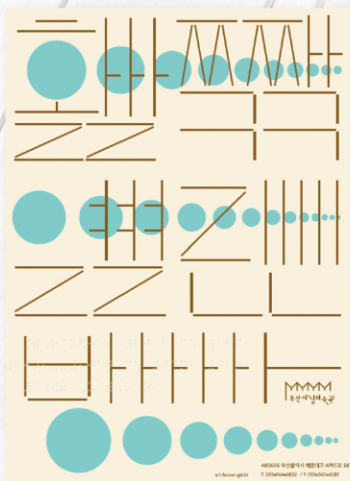


감성충전,
풍성한 초여름을 즐기요!

매년 이맘때면,
문화예술 전시와 축제로 문 밖이 들썩인다.
다시 못 올 2017년 초여름을
여유와 감성으로 한껏 충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부산을 찾아 온 '아주 특별한' 전시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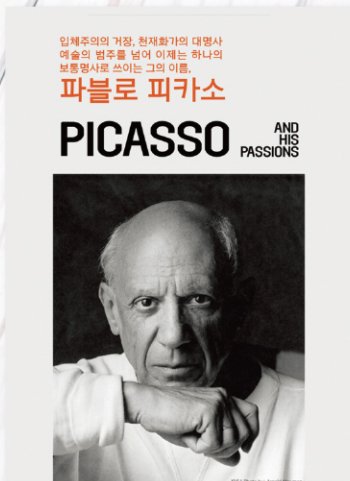


활짝 열린 방

전시기간_ 2017년 7월 2일까지
전시장소_ 부산시립미술관 3층 소전시실

전시 <활짝 열린 방 Unclosed Door>은 일반적인 시각적 인식행위와 '작품을 본다' 라는 의미에 관한 관심에서 출발한 기획이다.

<활짝 열린 방>은 단순히 묘사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촉각과 청각을 동원하여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다중감각적 경험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진 공간을 지칭한다. 이번 전시는 기록의 단순한 시각적 체험이 아닌 다중적 감각으로의 '작품 보기'를 도울 것이다.



피카소展 <피카소, 그리고 그의 열정>

전시기간_ 2017년 6월 6일까지
전시장소_ F1963 공연전시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 123번길 20)

입체주의(Cubism)의 창시자이자, 현대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창조한 거장 파블로 피카소(1881~1973). 아시아와 유럽을 통틀어 최대 규모의 진품으로 구성되는 이번 전시에는 피카소 특유의 다양한 미술기법과 입체성으로 표현된 판화와 도예작품, 유화와 동영상 등 390여 점이 선보인다.

특히,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희귀작과 개인 소장품 등이 다수 포함돼 피카소의 예술세계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할린 동포 2세 이예식 기증 (사할린세고려선문사) 사진전
얼어붙은 사할린 동포들의 눈물



이예식 사진전 <귀환>

전시기간_ 2017년 5월 13일까지

전시장소_ 부산 40계단 문화관 전시실

이번 전시는 2016년 눈빛출판사의 이예식 사진집 '귀환(возвращение)'과 김지연 작가의 '사할린의 한인들' 출판기념 사진전 이후 작가와 출판사가 작품과 액자를 KIN(지구촌동포연대)에 기부한 것이 계기가 돼 추진됐다. KIN의 지난 1월 사할린 방문단에 동행했던 (사)부산민예총 회원들과 협의해 전시가 성사됐다. 이번 전시는 사할린 동포들의 삶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부산다운' 행사



광안리어방축제

행사기간_ 2017년 5월 12일에서 5월 14일까지

행사장소_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도심 속 천혜의 휴식공간인 광안리에서 수영지방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성어기에 개최되고 있는 광안리어방축제. 바다와 수영팔경과 어방(조선시대 수영지방의 수군과 어민의 어업협동체)을 주제로 뮤지컬화한 어방그물끌기 한마당, 맨손으로 고기잡기, 활어요리경연대회, 해양스포츠 무료체험 등 바다와 모래사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만날 수 있다.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행사기간_ 2017년 5월 19일에서 5월 21일까지

행사장소_ 화명생태공원 및 선착장 일원

낙동강과 수변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대한민국 강 대표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낙동강의 역사적 전통과 현대의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로, 낙동강의 생태를 체험하는 교육적 테마와 함께 강가의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체험, 보부상 행렬, 뮤지컬, 전시·공연 등이 마련된다.



부산항축제

행사기간_ 2017년 5월 26일에서 5월 28일까지

행사장소_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및 국립해양박물관 일원

부산항축제는 세계 5대 항만인 부산항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88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부산항축제의 특색이 가장 잘 드러난 프로그램인 '부산항투어'는 배를 타고 북항을 직접 둘러볼 수 있으며, '선박공개행사'는 평상시에 보기 힘든 대형 해군함정, 해경함정 등 다양한 선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외에도 다양한 해양레저체험을 즐길 수 있다.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부산의료원과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은 수준 높은 진료로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47,300m²의 규모와 750개 병상을 갖춘 대형 병원

3.0T MRI, 128채널 MDCT 등 첨단장비 가동

부산대학교병원 협력진료로 대학병원 의료진이 직접 진료하는 병원

EMR 등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한 첨단 디지털 진료환경 구축

특성화 · 전문화된 센터중심 전문병원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

평생 건강 주치의로 지속적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갖춘 건강증진센터

특성화된
전문센터
병원

- 건강증진센터
- 소화기센터
- 인공신장센터
- 인공관절센터
- 재활센터
- 복 · 흉강경수술센터
- 심혈관센터
- 장애인치과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www.busanmc.or.kr T. 051.507.3000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부산힘찬병원과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무릎 · 어깨 · 허리 아플 때?



보건복지부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유효기간 : 2014.10.07~2018.10.06

강남힘찬병원
강북힘찬병원
강서힘찬병원



부산 힘찬병원

목동힘찬병원
부평힘찬병원
인천힘찬병원
창원힘찬병원

동래 수안역 7번 출구 부산시 동래구 총렬대로 255
매주 화 · 목 8시 야간진료 ☎1899-255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5707-중-74848호

심파텍스의 친환경 위킹화

코핑이건
물로 뛰어도
괜찮다

콜핑 전속모델
서현진

SHOES : 윈스턴 | KPM1316 M/U

⑥ • 갑피에 누벅스킨의 신세탁 적용으로 고급스러움 강조
• 완전방수/투습기능을 가진 독일의 원단소재 '심파텍스' 내피 적용

• 내마모성과 접지력이 우수한 부틸고무를 사용한 밑창
• 뒤틀림 방지 및 안정된 착지를 위한 PVC 뺑크 삽입

• 통기성/향균/향취에 강한
'오슬라이트' 인솔 사용

⑤ M : 255mm~280mm /
U : 230mm~280mm

④ M : BLUE /
U : BLACK

대리점 개설문의 055-780-2149 | 홈페이지 www.kolping.co.kr | 쇼핑몰 www.ekolping.co.kr | 대표번호 1644-6899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콜핑과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부산 대표 향토기업 파크랜드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PARKLAND

스타일에 _____
시원함을 더하다
가벼움을 더하다
ICE+
Air

ICE+
Air

파크랜드 아이스플러스 에어는 경량성있는 냉감기능성 원단과
부자재를 사용하고 반소매 안감을 적용하여 경량성과 통기성을
한층 더 강화한 냉감&웰빙 상품군입니다

시민 100인의 참여로 만든 부산시민 건강생활 수칙



식사는 싱겁게, 골고루, 천천히 먹습니다.



술은 3잔 이하로 마시고, 권하지 않습니다.



담배는 피우지 말고 피하며,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루 30분 걷기와 3회 스트레칭을 실천합니다.



건강검진은 꼬박꼬박 받고, 예방접종은 미루지 않습니다.



손씻기와 양치질은 잘하고 기침예절을 지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생활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가족(친지, 지인)과 마음의 대화를 합니다.



내가 먼저 이웃과 웃으며 인사합니다.



우리 마을을 깨끗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만듭니다.



건강프로그램과 건강한 정책 만들기에 적극 참여합니다.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대한체육회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문화융성

※ 이 캠페인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번이상 하루30분

스포츠733으로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세계 최대규모의 —
역사적인 엑스포가
2030년 부산에서
— 시작됩니다

BUSAN WORLD EXPO 2030